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만큼은 꼭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최근의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청사진이나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경상수지 등 각종 경제지표들도 IMF 당시보다 더욱 좋지 않다는 분석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듯 침체되어 있는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으니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녀석이다. 주머니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야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난한 마음상태에 세금부담까지 없어지니 어깨가 천근만근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고정신'이다.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세금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반드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를 적용받게 돼 훨씬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가산세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만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각종 가산세를 적용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 ③ 무

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이중장부의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된다.

또한 확정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2.5(연 9.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부담사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이 생기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보면 아마 신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1) 매출액 : 1억원
- 2) 매입액 : 7천만원
- 3)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 모두 하지 않은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확인되어 공제받은 것으로 함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	$(1\text{억원} \times 10\%) - (7,000\text{만원} \times 10\%)$ = 300만원	$(1\text{억원} \times 10\%) - (7,000\text{만원} \times 10\%)$ = 3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text{만원} \times 2.5/10,000 \times 50\text{일}$ = 37,500원	$300\text{만원} \times 2.5/10,000 \times 180\text{일}$ = 135,000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없음	$1\text{억원} \times 0.5\% = 50\text{만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없음	$7,000\text{만원} \times 0.5\% = 35\text{만원}$
무신고가산세	없음	$300\text{만원} \times 20\% = 60\text{만원}$
총 부담세액	3,037,500원	4,585,000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납부세액은 300만원으로 같지만 신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28일까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행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낼만한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만이라도 해야 한다.